

“배터리 충전 끝...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KIA 포수 김민식

허 찌르는 볼 배합·도루 저지로
투수 임기영·임창용과 환상 호흡
연승 이끌며 전환점 계기 마련

마운드 정상화에 '안방마님' 김민식이 힘을 보탠다.
KIA 타이거즈에 주중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3연전은 베팅 끝 승부였다. 앞서 삼성 라이온즈에 싸늘이 3연패를 당하는 등 4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7위까지 내려앉았고, 무엇보다 선발진의 부상과 부진 속 벤치의 '변칙 운영'으로 마운드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KIA는 마운드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부진으로 2군에 다녀왔던 임기영이 지난 31일 6.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시즌 6승에 성공했고, 임창용도 지난 1일 세 번째 선발 도전 끝에 3998일만의 선발승을 신고했다.
위기의 순간에 마운드 변수로 남아있던 두 선수가 침착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KIA는 한숨을 돌렸다. 김민식에게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연승이었다.

지난해 '우승 포수'로 역할을 했던 김민식이지만 올 시즌 성적은 좋지 못하다.
마무리캠프에서부터 공을 들였던 방망이가 시즌 초반에는 매섭게 돌아갔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김민식의 타율이 곤두박질했다.
5월 22경기에서 0.227의 타율을 기록했고, 6월 0.182(18경기), 7월 타율은 0.148(27경기)까지 떨어졌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불안한 수비가 더 아쉬웠다. 3개의 실책이 기록됐고, 도루 저지율도 지난해에 한참 부족하다. 지난 시즌 0.378의 도루 저지율로 상대의 발을 묶었던 김민식이지만 올 시즌 도루 저지율은 0.211까지 떨어졌다.
김민식은 임기영과 임창용의 승리 조력자가 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임기영의 승리 비결은 '체인지업'을 숨긴 것이다.
김민식은 "지난해 기어가는 직구와 체인지업으로 승부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슬라이더와 커브를 활용했다"고 언급했다.
경기 초반에 주구 체인지업을 사용하지 않고 롯데 타자들에게 혼선을 준 뒤 결정적인 순간 체인지업으로 허를 찔렀다. 여기에 슬라이더와 커브로 타이밍을 뺏으면서 임기영의 부활투를 이끌었다.
임기영도 경기가 끝난 뒤 "민식이 형의 리드가 너무 좋았다. 편하게 공을 던질 수 있었다"고 김민식의 공을 인정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24년 차 베테랑 임창용도 승

리 투수가 된 뒤 김민식의 이름을 언급했다.
임창용은 "몇 번 고개를 흔들기는 했지만 사인나는 대로 공을 던졌다"며 이날 결과에 대해 만족했다.
김민식은 "경기 전에 공을 받아보니 선배님의 직구가 좋았다. 직구를 중심으로 커브, 슬라이더로 강약을 조절했다. 선배님도 투심성으로 적절히 잘 섞어 던져주셨다"고 복기했다.
무엇보다 두 차례 선보인 김민식의 도루 저지가 임창용에게는 큰 힘이 됐다.
임창용은 4회와 5회 각각 1사 1루, 무사 1루의 상황을 맞았다. 4회에는 민병헌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고, 스타트를 끊은 주자 번즈까지 2루에서 처리하면서 순식간에 이닝을 정리했다. 5회에도 삼진과 도루 저지로 동시에 아웃카운트 두 개를 올렸다.
임창용은 "민식이의 도루 저지가 결정적이었다. 그게 없었다면 5회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민식은 "너무 오랜만에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오히려 부끄럽다"며 "지난 가을에도 캠프에 가서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다. 공격도 수비도 모두 좋지 못해서 부담도 되고, 긴장도 많이 했다.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있으니깐 팀이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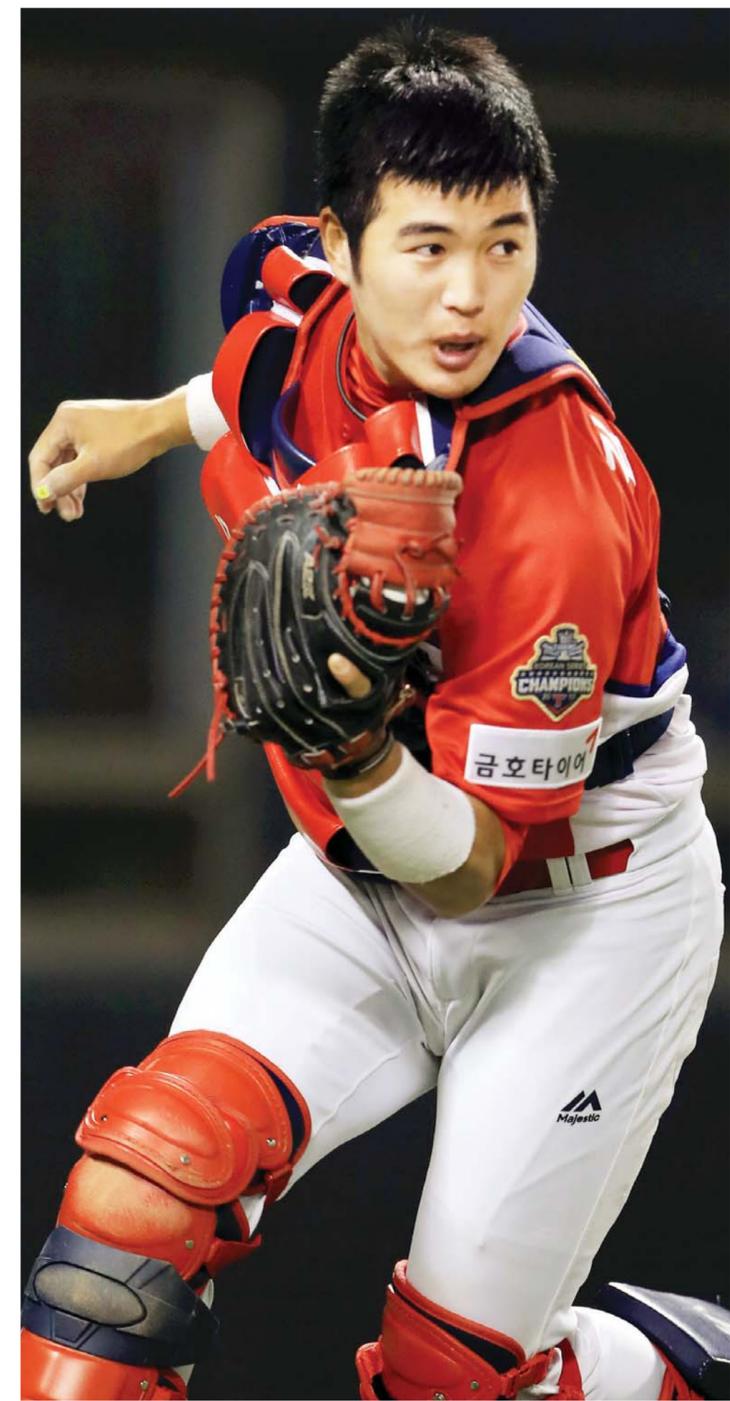
한달만에 돌아온 이범호 “이제부터 시작”

덕아웃 T 특목

▲왜 중요한 공이야? = 24년 차 베테랑 임창용에게는 똑같은 1승이었다. 임창용은 지난 1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5이닝 2피안타 4볼넷 6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임창용은 세 번째 선발 도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42세 1개월 28일의 나이로 KBO리그 역대 2번째 최고령 선발승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최고령 선발승 기록은 한화 송진우의 42세 6개월 28일. 임창용은 이번 승리로 삼성 시절이던 지난 2007년 8월 21일 롯데전 이후 3998일 만에 선발승도 장식했다. 또 타이거즈 선수로서는 처음 거둔 선발승이다. 1995년 진흥고를 졸업하고 해태 유니폼을 입은 그는 1998년까지 4시즌을 타이거즈 소속으로 뛰면서 29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모두 구원승이었다. 역사적인 승리였지만 임창용은

방송 인터뷰가 끝나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면서 후배들이 챙겨준 승리공을 관중석으로 던져줬다. 놀란 표정의 사람들과 달리 임창용은 "왜 중요한 공이야? 똑같은 1승이다"며 웃었다. 임창용은 "팀 승리에 역할을 하게 돼서 기쁘다. 다음에는 6회를 꼭 넘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제 시작입니다 = 베테랑 이범호가 한 달 여만에 복귀했다. KIA는 2일 롯데와의 경기를 앞두고 엔트리를 변경했다. 지난 6월 30일 좌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이범호를 엔트리에 등록하고, 투수 문경찬을 말소했다. 앞서 4월에는 사구에 맞아 우측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등 올 시즌 두 차례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범호는 "내가 더 트레닝 부분에 신경 쓰고 잘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뒤 "팀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후배들과 잘 맞춰서 팀이 성적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범호는 복귀 첫날 7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아 큰일이다 = KIA 불펜의 핵심 김윤동에게도 늘 가슴 떨리는 등판이다. 지난 3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팀 연패 탈출에 기여했던 김윤동은 1일에도 위기 상황에서 만점 활약을 하며 수훈 선수가 됐다. 이날 4-1로 앞선 6회 1사 2-3루에서 김세현에 이어 등판한 김윤동은 헛스윙 삼진 두 개로 급한 불을 끈 뒤 7회 2사까지 책임지고 물러났다. 긴박한 상황에서 투입되고 있는 김윤동은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아 큰일이다'는 생각을 한다. 야구를 할 때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다"고 웃었다. 여전히 긴장이 많이 된다는 김윤동이지만 그는 2일까지 2.87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4패 2세이브 14홀드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김윤동은 기록 이야기가 나오자 "안재(평균자책점이) 올라갈 지 모르니 캡처를 해둬야겠다"며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멀어지는 메이저 복귀

손목 통증 재발...마이내리그 재활경기 취소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손목 통증 재발로 재활 경기 출전을 취소했다.
미국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의 피츠버그 전담 기자 스티븐 네스빗은 2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강정호가 어제(1일) 트리플 A에서 재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왼손목에 불편함을 느껴 취소했다"며 "새로운 재활 경기 출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썼다.
강정호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취업비자를 받지 못했고, 2017시즌을 통째로 쉬었다.

올해 4월 극적으로 미국 취업비자를 받은 그는 마이내리그 싱글A 7경기 타율 0.417(24타수 10안타)로 활약한 뒤 트리플A로 승격했다.
하지만 6월 20일 노퍽 타이즈(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와의 경기에서 도루를 시도하다 왼쪽 손목을 다쳤다. 애초 예상보다 부상이 심각했고, 결국 한 달 넘게 실전을 지르지 못했다. 재활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그라운드에서 나설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현지에서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역전의 명수’ 정현

바그다티스에 2-1 역전승... 시티오피온 16강 진출

정현(23위·한국체대)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시티오피온(총상금 189만165 달러) 16강에 진출했다.
정현은 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단식 2회전에서 마르코스 바그다티스(91위·키프로스)에게 2-1(6-7(2-7) 6-4 6-3) 역전승을 거뒀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현은 스티브 존슨(34위·미국)-알렉스 드 미나르(72위·호주) 경기 승자와 3회전을 치른다.
이날 정현이 물리친 바그다티스는 현재 세계

랭킹이 91위까지 밀렸지만 2006년에는 세계 랭킹 8위에 올랐던 선수다. 33세 베테랑인 바그다티스는 2006년 호주오피온에서 준우승했고 같은 해 Wimbledon 4강에도 진출한 경력이 있다.
이번 대회 8번 시드를 받은 정현은 1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2-2로 맞서다 내리 5포인트를 내주면서 기선을 제압당했다. 2, 3세트에서는 상대에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도 내주지 않으며 1세트 타이브레이크 패배로 침체했던 경기 분위기를 뒤집었다. /연합뉴스



남북 여성농구 훈련장은 웃음꽃 2일 오전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북측 김혜연(왼쪽)과 남측 강이슬이 훈련 도중 몸싸움하다 넘어져자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